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총회'를 주제로 제38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정기총회가 21일 필라델피아 래디슨 호텔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제3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정기총회가 21일 LA국제공항 인근 웨스틴호텔에서 개막됐다.

## KPCA 제38회 정기총회 필라델피아서 개막

총회장 호성기 목사, 부총회장 노진걸 목사·이대연 장로

제 38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정기총회가 21일 필라델피아 래디슨 호텔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총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첫날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인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가 관례대로 추대됐으며 부총회장은 노진걸 목사(홀러튼장로교회), 장로부총회장은 이대연 장로(은혜교회)가 선출됐다. 당초 큰 관심을 모았던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2명이 2차에 걸친 투표에도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탈락처리 되고 증경회장단이 추천한 후보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는 강신

권 목사(서노회)와 박성진 목사(LA노회)였으나 1차 투표에 이어진 2차 투표에도 두 후보 모두 박빙을 보이며 과반을 얻지 못하자 자동 후보자격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후보가 현장에서 추천됐다. 증경총회장단은 노진걸 목사와 박성규 목사를 새로운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 선거에 돌입했으며 노진걸 목사는 총 270표 중 195표를 얻어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단독후보한 이대연 장로는 과반수 득표를 쉽게 당선을 확정지었다. 내빈으로는 예정통합 총회장 손달익 목사, 한국장신대 총장 김명용 목사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대원 기자

## KAPC 제37회 정기총회... 첫날부터 '시끌'

총회장·부총회장 선거 및 임원 선거 끝내 무산

제 3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정기총회가 21일 오후 7시 LA국제공항 인근 웨스틴호텔에서 개막,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가주노회 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경비원이 출동하는 등 개최 첫날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 개최예배는 총회장 김남수 목사(뉴저지야가페장로교회)의 인도 하에 진행됐다. 부총회장 엄영민 목사는 설교에서 "총회를 위해 남가주노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왔고, 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찬예식이 거행됐으며, 회무처리는 오후 9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김남수 총회장이 의장 자격으로 강단에 나서자 일부 총대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장내 분위기는 이내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어 일부 총대 및 관계자들이 총회장을 향해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자 부총회장 엄영민 목사가 강단에서 대인 회원 호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준비위 측과 시가주노회 일부 총대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고, 이에 엄영민 목사가 총회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개회선언을 하는 동시에 오후 9시 53분 정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총회장·부총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은 진행되지 못한 채 첫날 순서를 모두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 사랑의빛선교교회 최혁 목사, 다운니에 새로 교회 개척

지난달 초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던 LA 사랑의빛선교교회 최혁 목사가 다운니 지역에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고 발표했다. 최혁 목사는 지난 4월 9일 본인이 시무하던 사랑의빛선교교회 측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돌연 한국으



최혁 목사

로 귀국했다. 이후 10일만에 다시 돌아온 최혁 목사는, 다운니 지역에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라는 이름으로 새로 교회를 개척한 다며 한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냈다. 최 목사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보를 둘러싸고 사랑의빛선교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계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혁 목사가 지난달 갑자기 사표를 낸 뒤 돌연 모습을 감추자 청빙을 제안 받고 잠적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회 측으로부터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고, 사표 수리조차 유보돼 오다 최 목사가 급기야 사표를 빨리 수리해 달라며 요청해 공식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오는 5월 26일(일) 오후 1시 30분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개척을 앞두고 벌써 교회 웹사이트(www.inchristcc.com)도 공개됐다. 정한나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비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낙태의사 살인 사건으로 보는 “낙태와 생명의 기준” 논란



지난 2005년 1월 25일 수천의 낙태반대론자들이 워싱턴DC에 소재한 대법원을 향해 시위 행진을 하던 모습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 커밋 고스넬이 3명의 영아에 대한 일급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전 미국은 그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경악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년 1천 건 이상의 낙태를 시술하며 산 채로 태어난 아기까지 살해한 커밋 고스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스넬은 임신 24주 후에는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필라델피아 주법을 어기고 낙태를 시술했다. 이 범죄는 의사 면허 박탈 및 벌금,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의료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스넬에게 일급살인 혐의가 부과된 이유는, 태아들이 산 채로 출생했다가 고스넬에 의해 가위로 잘려 죽거나, 목이 졸려 숨졌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살았다”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였다. 고스넬의 변호사인 존 맥마흔이 “아기들이 산 채로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아기들이 죽은 채로 태어났거나, 태중에서 낙태 도구를 이용해 생명을 빼앗긴 후, 밖으로 추출했다면 의뢰인인 고스넬이 일급살인 혐의는 벗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배심원들이 그의 유죄 여부를 놓고 무려 2주간이나 고심한 이유도 정말 아기들이 “산 채로 태어났는데 죽었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다. 결국 3명은 산 채로 태어났는데 살해했으니 일급살인이며, 4번째 아기는 산 채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살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이 유죄 판결에 의

해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태중에 있던 아기를 살아서 태어나게 한 후 죽이면 살인, 태중에서 죽인 후,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다. 그동안 주 법에 의해 24주로 낙태 가능 시점이 규정된 상황에서 고스넬은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거나, 각종 거짓말로 불법 낙태를 시술해 무려 18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고스넬은 임신 29주차의 여성에게 낙태를 행하기 위해 일반 낙태가 아닌 유도분만을 시도했다. 태아가 출산을 앞두고 대부분 성장한 시점에서 낙태를 할 경우, 산모에게 끼치는 건강상 영향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안전하게 아기를 일단 분만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아기는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농담을 의료진에 던진 후, 척수를 가위로 잘라 살해했다. 또 다른 아기는 산모가 임신유도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분만했지만 곧 목이 졸려 숨졌다.

그 외에도 다수의 아기들은 세상으로 태어나지만 앉았을 뿐, 태중에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4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후, 사체가 추출됐지만 이것은 일급살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태어나서 죽으면 살인, 죽인 후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규정의 모호함이 이 문제를 더욱 거센 낙태 논쟁으로 이끌고 있다.

이 24주 규정은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나왔다. 그 전에 미국의 대다수 주에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낙태는 불법이었으나 이 판결 이후,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할 권한이 보장됐고 대다수 주에서 24주를 낙태 기한으로 잡게 됐다. 판결 당시, 의학전문가들은 24주 이전의 태아는 태어나도 자궁 밖에서 생명체로 살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4주가 채택됐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 낙태시술만 65만 건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99만5천 건이 넘었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낙태까지 포함할 경우, 낙태에 의해 살해당한 생명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법 이후, 낙태는 생명윤리학자들과 기독교계 등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왔지만 고스넬 사건은 24주라는 기한보다 생명 자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려 준다. 24주가 과연 생명의 존립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24주 이후에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인데, 죽인 후에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리고 23주 차 아기는 어디

서 살해하건 합법이며 24주 차 아기는 태어난 후에 살해하면 살인이라는 기준도 썩 명확하진 않다.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올해 초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약 6주에서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칸소 주에서는 12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이 규정한 24주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고스넬은 지난 30년간 매년 1천건 이상의 낙태를 행하며 5천4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돈에는 24주라는 기준과 산 채로 출생했으나 여부에 따라, 합법, 불법이란 딱지가 붙은 채 세상을 떠난 아기 수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다. 24주란 기준이 세워진 역사적 판결의 원고였던 제인 로(본명 노마 맥코베)가 판결로부터 12년 후인 2005년 1월에 한 발표가 새롭게 다가온다. “나는 낙태를 한 이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은 다른 여자들을 신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있어서의 내가 했던 역할을 뒤집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깊은 비애와 후회를 가지고 살아 왔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로부터 낙태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지고 살아 왔다.” 김준형 기자



커밋 고스넬

##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 56회나 선정된 목회자

###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마지막 행사 앞둔 빌리 그레함에 존경 표해

올해 11월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마지막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복음주의 교계에 끼친 그의 영향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미복음주의협회 소속 지도자들 중 73%가 빌리 그레함 목사의 크루세이드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직접 만났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미국 복음주의의 교단, 교회, 학교, 기관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미복음주의협회의 레이스 앤더슨(Leith Anderson)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의 활동의 재기는 빌



빌리 그레함 목사

리 그레함 목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정치, 야망, 돈,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했다”고 전했다.

빌리그레함 복음주의협회에 따르면, 올해 94세가 되는 그레함 목사는 185개국에서 온 약 2억1,500만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

며, TV나 다른 형태의 방송은 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그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31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갤럽에서 실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에 56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앤더슨은 “빌리 그레함은 미국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난 100년간 누구보다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아마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 중에는 ‘미국선교연합(Mission America Coalition)’의장 겸 대표인 폴 시더(Paul Cedar) 박사가 있다. 시더 박사는 그레함 목사를 그의 ‘영적인 영웅’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시더 박사는 11세 때부터 그레함 목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결단의 시간’을 매 주마다 가족들과 함께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라디오를 통해 돌봄을 받았으며, 그레함 목사는 나의 영성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시더 박사는 그 후 그레함 목사의 사역인 크루세이드를 맡게 됐다. 매우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 해 오고 있는 그는 “지도자의 공적인 모습과 개인적인 인격이 다를 때

가 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한 번도 그러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빌리그레함 복음주의협회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하는 나의 희망 미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미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더 박사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레함 목사의 열정이, 복음주의를 향한 그의 마음의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하는 나의 희망’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코헨신학대학교 (CUTS)**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제25회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코헨신학대학교는 Vision 153 World Mission을 위해 세워진 대학교이며, 최종 목표는 Vision 153을 완성하여 기독교 UN을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왕립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표: Vision 153 World Mission**  
**현재: 2013년 5월 31일 현재 전세계 100개국**  
**코헨위성모체신학대학건설(66%완성)**

▶ 약도

**제39차 코헨 국제 세미나**  
주제: Back to the Bible!  
일시: 2013.5.27-6.8  
장소: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제 25회 코헨 신학대학교 졸업식**  
일시: 2013.5.31(금) 오후4시  
장소: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D.R.E.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박사원장** Dr. Vance Vandermey, Th.D.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 (424)257-8171 / Fax :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E-mail : cohenuiversity@hotmail.com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함께 해줘서 고마운 분들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산을 하고 사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  
이 생기는가 봅니다. 바로 그 이웃이  
이사를 한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랫동안 옆집에 살아준 것만  
도 얼마나 고마운 이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십수년을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별 탈도 없었고 항상 서로 유익  
하려고 애썼으며(장기여행이라도 가  
면 서로 짐을 부탁하는 등) 옆에 있  
는 자체만으로 복이 돼준 그런 이웃  
말입니다.

저도 급하게 저희 뒤뜰 수돗물을 끌  
어내어 불타는 지붕에 물을 같이 쏟  
아뒀던 위급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  
행히 지붕만 일부 타고 소방차가 와  
서 집 전체가 불타는 것을 막아줬습  
니다. 그 후 한 번도 그때 수돗물을 같  
이 쏟아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인  
사가 없어서 좀 괴팍한 마음이 있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진 것이, 그 집 지붕에 불난  
것을 보고 급하게 수돗물을 뿌려가며  
도와준 것은 우리 집까지 옮겨붙을까  
봐 신속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었  
는지 양심의 찢림이 생겼기 때문입  
니다. 다들 이렇게 자기 위주의 이해타

우리가 한평생 옆집에서, 또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로 별탈 없이 이웃이  
되어 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  
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  
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들이 종종 있는  
데 피차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만 있어도 유익한 이웃입니다. 예배를  
방해 안하고 목회를 가로막지 않으  
면 전도가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어만  
주어도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인지 모  
릅니다. 제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  
로 그런 이웃들이며 가족들입니다. 점  
잖고 정 많으며 함께 조용히 걸어주  
는 참 아름다운 이웃들입니다.

## “우리 모두가 살렸다”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동부 열린말씀 컨퍼런스를 마치고  
엘에어로 돌아오는 길은 컨퍼런스 중  
받은 은혜와 상관없이 집 떠난 피로  
가 몰려와 온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삼엄한 공항 경계를 통과하여 드디  
어 기내에 타서 몰려오는 잠을 청하  
며 가족과 교회를 향하여 날아가기를  
한 시간쯤 했을까, 갑자기 내 앞에 앉  
은 손님이 까무러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승무원들이 비상의로 기구  
를 동원해서 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던지 드디어 기내방송  
을 하면서 승객 중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와달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목  
사가 있냐고 찾지는 않았다.(웃음)

마침 의사 한 분이 걸어 나오더니,  
청진기를 들이대고 진찰을 한다. 환자  
에게 이런 저런 질문도 던져본다. 그  
림에도 환자는 계속 무반응이었다. 그  
러던 중 자기가 간호사라며 한 여자  
승객이 돌겠다고 다가왔다. 의사는 승  
무원에게 산소호흡기를 준비해 달라  
고 부탁하더니, 갑자기 환자를 좁은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는 정신도  
돌아오는 듯했고, 옆에 앉은 간호사와  
대화도 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비행기  
는 시카고 공항에 착륙했고, 패라메디  
스들이 잠시 후 기내에 오르더니, 환  
자를 부축해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환자를 살려  
낸 의사와 간호사에게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  
했다. 정말 감동이었다.

기내복도로 끌어내려 눕혀놓고, CPR  
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순간이 절박하던지 바로 뒤에서 기도  
하며 지켜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러  
다가 환자가 죽는 것이 아닌가 싶었  
다. 2-3분 흘렀을까, 한 시간 같이 느  
껴진 짧은 시간이 지난 후, 환자는 호  
흡이 돌아 오는 듯했다.  
이 와중에 급한 기내방송이 시작되  
었다. 승객 중 한 사람에게 다친 위급  
상황으로 비행기는 시카고에 급착륙

그 후 약 3시간 가량 시카고 공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륙했지만, 기  
내에 타고 있던 어떤 승객도 비행시  
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  
았다. 한 생명을 살려낸 일이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바로 뒷자리에서 기  
도하던 목사에게만 달려있던 일이 아  
니라, 기내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  
이 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마침 교회  
에 더해지는 새생명은 결국 우리 모  
두가 같이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주  
듯 말이다.

## THE MEDITATION OF THE OLD FISHERMAN

나이든 어부의 명상

William B. Yeats

You waves, though you dance by  
my feet like children at play,  
그대 물결이여, 장난치는 어린이들  
같이 내 발치에서 춤을 추고  
Though you glow and you glance,  
thought you purr and you dart;  
빛나고 반짝이며 즐거운 소리를 내  
며 화살처럼 돌진하기도 하지만  
In the Junes that were warmer  
than these are, the waves were  
more gay,  
요즈음보다 예전의 유월은 더욱 파  
스했고 물결은 더욱 활기찼다오  
When I was a boy with never a  
crack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결코 상처가 없었던  
소년 시절에는

The herrings are not in the tides  
as they were of old;  
청어들은 이제 옛날처럼 물결 속에  
있지 않으니  
My sorrow! For many a creak  
gave the creel in the cart  
슬프도다! 삐걱 소리 많이 내며 물  
고기 바구니를 마차에 실어  
That carried the take to Sligo  
town to be sold,  
스리고 마을로 팔려고 싣고 갔다  
오.  
When I was a boy with never a  
crack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결코 상처가 없었던  
소년 시절에는  
And ah, you proud maiden, you

are not so fair when his oar  
그런데 아, 그대 자랑스런 아낙네  
여, 그대보다 바다 위에서 남궁의  
Is heard on the water, as they  
were, the proud and part,  
노 젓는 소리를 들을 때, 뱃사람들  
은 자랑스럽게 멀리 떨어져서  
Who paced in the eve by the nets  
on the pebbly shore,  
조약돌이 깔린 바닷가 그물 곁에  
서 저녁에 거니는 그들이 더 아름  
답다오  
When I was a boy with never a  
crack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결코 상처가 없었던  
소년 시절에는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탐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1865년 6월 13  
일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39년 1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64세  
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어린  
시절에는 스리고(Sligo)라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문학을 주도한 20세기의 천재  
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적 공  
로를 인정받아 1923년에는 노벨문학  
상까지 받았다. 문학 평론가들은 모  
두 그의 시에 대해 평하기를 “예수의  
극치를 이루며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고 극찬을 아끼  
지 않았다. 문인으로서 예이츠는 아  
일랜드의 상원 의원으로 두 번씩이나  
봉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시인이기도 하다. 또한 노벨  
상을 탄 후에도 많은 작품을 남긴 드  
문 시인이기도 하다.

〈시 감상〉  
이 시는 모름지기 어린시절을 회상  
하며 한 어부의 심정을 그려 자신을  
비취보는 시라고 하겠다. 바다 물결은  
어부들의 베개이며 출렁이는 물결은  
마치 어린이들이 춤을 추게 하는 울  
동이기도 하다. 그 옛날의 물결과 오  
늘날의 물결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만  
은 어린시절의 물결과 나이 들었을 때  
의 물결의 감각은 아주 다른 변한 모  
습이다. 물고기조차 옛날에 비하면 많  
이 잡히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 고  
기 바구니를 마차에 싣고 스리고에  
있는 생선 장마당을 찾아갈 때 빈 수  
레 소리만 요란하다는 시인의 느낌이  
다. 뱃사공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마을  
아낙네의 모습 또한 어여쁘지만 어부  
들의 노 젓는 모습과 조약돌 위에 그  
물을 펼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더 대견스럽다는 노동의 신성  
함을 묘사하기도 했다. 세월이 갈수록  
모든것은 변한다는 알듯은 인생의 가  
날픈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  
라고나 할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옛  
날의 추억들을 떠올려보고 옛 그리움  
을 찾아보게 하는 시라고 하겠다.  
“우리 가슴 속에 아무런 상처가 없  
었을 때에는 삶이 즐겁기만 했고 풍  
성했지만 했고 자랑스럽기만 했었다.  
오늘날은 활기가 없고 넉넉치 못하고  
고달프기만 하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의 모습이라네요!”



배효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20돌 맞은 LA기윤실 “앞으로도 건강교회운동에 매진할 것”



발족 20주년을 맞이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념만찬 행사에 남가주 일원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LA기윤실)이 발족 20주년을 맞아 기념 만찬을 가졌다. 18일 오후 마음이간난한사람들의교회에서다.

이날 만찬에는 평소 LA기윤실과 협력하며 동역해온 남가주 일원 목회자들을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나온 2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LA기윤실이 그간 걸어온 발자취와 의미를 회고한 유용석 장로(실무책임

자)는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지상에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회 속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사회와 민족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고, 경건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의 덩치는 커졌으나,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게 자

금의 현실이다”면서 “LA기윤실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생활 속의 신앙을 실천하는 ‘정직하고 검소하게 나누며 살자’는 운동으로 시작했다. 시민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소비를 절제하는 삶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했다. 한마디로 말해 LA기윤실은 건강교회운동에 매진해 왔다. 매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가진 문제를 주제로 건강교회포럼을 개최해 왔고 교회개혁을 주제로 하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 사회와 민족 위한 등불 역할 감당해야

고 말했다. 이어 “LA기윤실은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을 통해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먹였다. 초기에는 중국 연변에서 빵을 생산하다가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 등지에 빵 공장을 직접 설립했고, 현재까지 2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4000톤이 넘는 밀가루를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냈다. 또한 젓소 2200여 마리를 북한의 4개 도에 보내어 북한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한 우유를 생산하기도 했다. 그 후 북한의 접경지역인 연변에서 탈북 고아 돕기를 하다가 지금은 미국의 탈북동포를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며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지난 세월의 실적을 밀거름 삼아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정직한 삶,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웃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기윤실 전문위원장인 송봉호 장로는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최근 타임지에 따르면 한국의 탈세

율이 26.8%로 미국의 8.6%에 비해 약 3배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탈세율이 낮은 것은 미국이 매우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더 낮추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미국의 동포사회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20주년을 맞는 LA기윤실이 사명감을 갖고 이에 공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1부 기념식과 만찬에 이어 2부 ‘홍순관의 춤추는 평화’ 축하공연이 열렸다. 홍순관 씨는 노래하는 시인이자 가수로 활동 중이며, 고운 노랫말과 서정성, 기독교적 영성과 역사 의식을 노래 안에 담아내면서, 생명, 평화, 환경, 어린이 등을 주제로 수백회가 넘는 공연을 펼쳐왔다.

특히 한국 땅에 평화박물관을 짓기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박물관건립모금공연 ‘춤추는 평화-Dancing with Peace’를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10장의 음반을 발표했으며, 단상집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를 내기도 했다.

## 전 세계 기독교인들, ‘세계 기도의 날’ 맞아 합심 기도

### 교회 회복과 박해받은 교인들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주일을 맞아 스타디움, 오라토리오, 교회, 가정, 비밀 장소 등에 모여서 국가와 세계의 치유와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

미국에서 인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단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 캘리포니아 레드랜드의 브룩사이드 프리 감리교회(Brookside Free Methodist Church)는 모든 참석자들을 위해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기도 수첩을 만들었다. 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도수첩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됐다. 컬럼비아에서는 최소 7개의 교회

드 프리 감리교회(Brookside Free Methodist Church)는 모든 참석자들을 위해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기도 수첩을 만들었다. 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도수첩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됐다. 컬럼비아에서는 최소 7개의 교회



**믿을 수 있는 100% 민족기업**  
**농협 홍삼 한삼인**

**감사의 달 5월**

**보너스 대잔치**

**2 + 1**

**홍삼 순액 30포(1Box) \$120**  
60포(2Box) \$240 를 사면 **30포(1 Box)가 무료**

**홍삼 농축 액기스 100g (1병) \$90**  
200g (2병) \$180 를 사면 **100g(1병) \$90가 무료**

**www.korginseng.com**  
**email : kio6624@gmail.com**

LA 323-737-8888 / 3130 W.Olympic Blvd, Ste 120 Los Angeles, CA 90006(올림픽과 하바드)  
OC 213-453-6624 (플러튼 아리랑마켓)

### 오순절 주일 맞아 스타디움, 오라토리오

### 교회, 가정, 비밀 장소에서 기도의 손 모으다

가 세계 기도의 날을 열었다. 인도에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뉴델리 타이아그라스 스타디움에 모여서 주의 얼굴을 구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감리교, 침례교,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 필리핀어, 만다린어, 타이어 등의 언어로 함께 세계 기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세계 기도의 날 온라인 웹사이트에는 “첫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 나라의 치유와 축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교회의 벽을 넘어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기록돼 있다.

세계 기도의 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지난 9일부터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으며, 10일 동안 밤과 낮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날을 이끌고 있다. 24시간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의 끈이 형성돼 있다. 다른 이들은 1~2시간 집중 기도하거나 혹은 음식을 하기도 한다.

기도의 날 이후 5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90일간의 축복’이 이어지며, 이를 통해 청년들과 아이들이 기도와 봉사를 위해 소외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이다.

세계 기도의 날 측은 다양한 언어로 기도제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순절 주일에 대한 기도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오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를 짊어지는 자들, 배고픈 자들, 과부, 노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세계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직관력을 주셔서 모두를 위해 이 땅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과 사망을 조장하는 사단을 결박하십시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노예적인 삶, 압제, 질병에서 놓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과 사상 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세계 기도의 날은 또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박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종교자유센터(Center for Religious Freedom) 책임자로서 미국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구원인 니나 셰아(Nina Shea)는 지난 18일 “종교 박해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인권의 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박해받는 그룹이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투옥되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감옥으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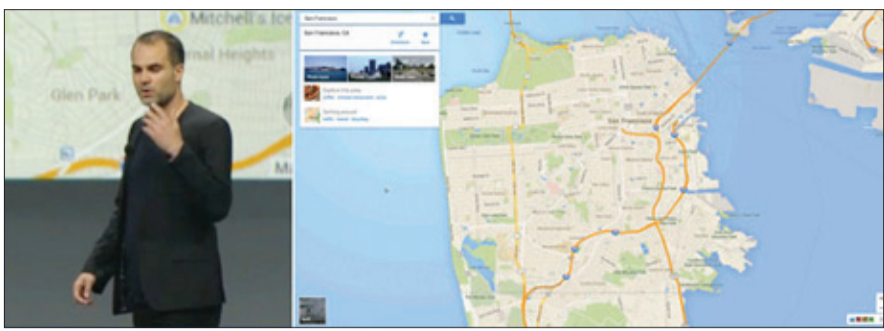
그녀는 이어 “이러한 박해는 3가지 형태의 국가에서 발생한다. 북한-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버마-에리트리아 같은 민족주의 국가, 그리고 이슬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무슬림 세계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세계 기도의 날은 지난 2000년 7월 아프리카에서 열린 ‘회개와 기도의 날’과 더불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 기독교 사업가인 그라함 파워(Graham Power)의 마음을 불드시오 그에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과 함께 비전을 주셨다. 이후 2005년 5월 15일, 156개국에서 교파·교단·문화·국경을 초월하여 모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세계 기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기자의 눈

진화하는 구글 맵에서 목회자의 영성을 찾는다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Google I/O 2013)에서 새로운 구글맵이 발표됐다. (사진=Google I/O 2013)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Google I/O 2013)'에서 새로운 구글맵이 발표됐다.

사용자가 자주 가는 곳이나 자주 검색하는 자료 등 그 성향을 분석해 사용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가장 관심있는 사항들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맞춤형 목회자란 어떤 것일까?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정확한 영적 지도를 갖고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그 정확성은 어디서 나올까? 구글은 끊임없이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데이트는 필수다. 사고가 나서 트래픽이 심한 길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려줄 때마다 구글맵에 충성하는 사용자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확하게 업데이트 하고 있을까? 4차원의 영성을 다루는 목회자들중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목회에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를 가진 목회자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서 영적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목회자, 실시간 업데이트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메시지)을 제시하고 기도해 주는 목회자, 목양일지나 담담 리더들의 의견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 일대일 상담으로 가장 정확한 십자가의 길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할 것인가?

더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목말라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길인 줄 알고 생명이"라는 정확한 십자가의 길을 추천하고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하지 않으실까?

조요한 기자

교황 프란치스코 "금송이지(돈) 숭배가 인간의 삶 억눌러"

"금송이지를 숭배하는 비인간적 삶이 나타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돈 숭배를 중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최근 바티칸을 찾은 세계 각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돈을 숭상하며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은 빈부격차와 배금주의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대중은 무너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오직 소비력만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황은 시장의 무절제한 자율성과 투기적 금융을 이끈 현 세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탈세와 부패 등 비윤리적 행위도 비판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3월13일 교황에 취임한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으로 활동할 때부터 가난 퇴치에



교황 프란치스코 1세

힘써왔다. 그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교황은 지난 1일 노동절 때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의류공장 화재 참사를 겨냥해 "인간의 존엄은 돈이 아닌 노동으로 형성된다"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27일 갓스윌연합교회서 일일통독집회 마련

미주요한선교단 주최

오는 27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에서 일일통독 집회를 마련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에서 열리는 이 집회는 신약 27권 260장을 하루에 완독하는 일일신약

통독집회이다. 특히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성경통독도 진행되며, 4복음서 및 사도행전을 다룰 예정이다.

>갓스윌연합교회-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문의:(909)983-0994

OC 원로성직자회 오는 6월 위로관광

OC 원로성직자회(회장 정영수 목사)가 오는 6월 10-12일 2박 3일에 걸쳐 '세도나 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은 은퇴한 원로목사들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OC 원로성직자회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녀올 수 있다.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박헌성 담임목사 여성열린문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생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류중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 교회생활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F. (310) 325-4025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망 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F.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4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F.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서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황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주일학교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플러튼 분원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캠페인'

### 자생한방병원, 일일무료진료 봉사



자생한방병원 윤재필 원장이 남가주 한인교회 교인 대상 일일무료진료 봉사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15일 OC교회 임원들이 윤 원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대표원장 윤재필)이 15일 플러튼 자생한방병원에서 열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임원회에서 남가주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일무료진료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자생한방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희망 교회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세미나와 함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미나 및 진료는 자생한방병원 플러튼 분원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 세미나 내용은 '척추질환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하며, 진료는 초진상담, X-Ray 검진 및 침치료가 될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센터, 웰니스센터, 카이로프랙틱센터 등을 갖추고 각종 관절 및 디스크 클리닉, 산후 클리닉 및 자세교정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플러튼, LA, 엘바인, 샌디에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저지를 포함 미주 분원 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건강캠페인 해택을 원하는 교회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화: (714) 773-7000, (714) 773-7000  
▷이메일: js.gabriel@live.com

## LA동부지역목회자협의회 탁구대회 개최



LA동부지역목회자협의회 탁구대회를 마친 뒤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LA동부지역목회자협의회가 탁구대회를 15일 오전 10시 동부사랑의교회 친교실에서 열었다. 10개 교회에서 25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운동으로 하나되어, 복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우승은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와 전성철 목사가 했으며, 준우승은 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와 김도혁 목사가 차지했다. 전체 준비 및 식사는 동부사랑의교회에서 준비했다.

## 추억의 자판기 커피, 우리 교회에서 이용해볼까?



Coffee Tree USA 이민 사장.

### Coffee Tree USA 10주년 기념 다양한 혜택

추억의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이민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다. 미니커피자판기 미주 총판인 Coffee Tree USA에서 추억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커피와 차(Tea)를 제공하는 '커피 미니 자판기'를 미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미국 시장에 자판기가 공급된 지 10주년을 맞아 흥보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는 커피 자판기가 이민자들이 자주 모이는 교회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리 서비스부터 25센트 또는 50센트로 가

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해외선교자 금으로 마련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사장은 "이민자들에게 옛날 다방커피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판기를 공급하게 되었고, 기계 관리가 쉬워서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여러 교회에서 자판기를 비치해놓고 쓰면서 목사님들이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자판기는 현재 남가주 의 교회, 식당, 은행, 사무실 등 한국인이 모이는 여러 곳에 비치돼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A/S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맛의 종류는 밀크커피, 한국차(검정콩유무차, 유차차, 대추생강차), 카푸치노, 핫초코, 블랙커피 등이 있다.

이민 사장은 "기존의 커피 메이커로 만든 커피는 남은 것을 버려야 하는 낭비가 있지만, 이 자판기로는 재료의 낭비가 전혀 없어 재료 절감의 경제성이 있다"며 "추억의 밀크커피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문의: (213) 272-7502, (213) 820-1191  
▷웹사이트: www.coffeetreeusa.com

## 남가주살롬교회 부흥사경회 연다

남가주살롬교회가 오는 24일부터 3일간 부흥사경회를 연다. '제 3의 인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 강사로는 조건회 목사(예능교회 담임)가 나선다. 조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Div)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Th. M)을 거쳐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소망교회 부목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번 부흥회 기간 그는 24일 오후 7시 30분, 25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 26일 오전 8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등 총 5회에 걸쳐 말씀을 전한다.

▷주소: 2531 W. 237th St. #108 Torrance, CA 90505 ▷문의: (310) 787-1004





# 가정의 달 사랑 특별세일



워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환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변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 HQ구연산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별매커리)

**무료** 코코아립TS탈환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소금 1봉지

**무료** 미네랄소금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oz(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밤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뚱뚱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가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아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곱.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고 괜참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반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있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내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웨스 퀴리회 훈연구수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올림픽파크렌저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음악은 '세상 가수' 가 메시지는 '설교자' 가... 그럼?

## 대표적 찬양사역자들, CCM계의 '총체적 난국' 타개책 모색

“CCM을 비롯해 침체된 기독교 음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삶에 도전이 되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력과 영성을 갖춘, 준비된 찬양사역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찬양사역자들이 20일 한 자리에 모여, 한국 CCM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찬양사역자들은 “CCM 등 기독교 음악이 한국교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총체적 난국에 도달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연구원 소금향, 한국다리놓는사람들, 서울장신대 예배찬양사역대학원, 공연기획

GCM, 홍보기획 추미디어앤아트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천아티스트연합(UCA: United Christian Artists) 주관으로 상도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CCM과 교회문화'란 주제로 권광은 교수(서울장신대)가 사회를 맡고, 한국 CCM계를 대표하는 최덕신·강명식·김명식·심중호·장혁재·전관용 등의 찬양사역자들이 참여했다.

전관용 목사(예배사역자)는 한국교회가 CCM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천 목사는 목회자 친구에게서 “찬양사역자를 교회로 초청하고 싶지 않다.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크리스천 일반 가수들을 부를 것이고, 메시지가 필요하

면 지명한 설교자를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담을 전했다.

천 목사는 “CCM 사역자들이 '수준 이하'라는 평가로 들렸다.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찬양사역자들이 한국교회에 유익을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신뢰를 못 줬다”고 밝혔다. 또 천 목사는 “솔직히 마커스와 같은 몇몇 CCM 찬양팀을 제외하고는 활발히 활동하는 팀이 없다. 총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게 지금의 한국 CCM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강명식(CCM 아티스트) 씨 역시 “소수의 예배음악으로만 몰리고, 건강하며 수평적이면서 대중적인 CCM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태”라며 한국교회에서 CCM이 설 자리를 잃었음을 재차 지적했다.

심중호(마커스, 예배사역자) 씨는 “CCM 등 한국 기독교 음악의 발전하기 위해선 CCM이 갖고 있는 본인의 장점들을 활성화하고, 일상의 언어로 나눌 수 있을 만한 CCM 노래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덕신(CCM 아티스트) 씨는 CCM의 위기를 바라보며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을 주문했다. 그는 “첫째, CCM 사역자들이 과거엔 모두 아마추어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악적 탁월함을 갖춰야 한다. 둘째, 성공한 CCM 사역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새롭고 용기있는 '시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장혁재(소리엘, CCM 아티스트) 씨는 CCM 사역자들의 생활고가 심

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래의 찬양사역자들이 음악 실력과 함께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CCM 사역팀이 생활고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렵지만 평생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원하는 찬양사역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사역자이면서 음악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식(CCM 아티스트)는 “CCM은 누구에게나 벽찰 수 있고 감동적인 도전이 되는 음악을 들려줬으면 한다”면서 미래의 찬양사역자들을 향해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CCM 등 기독교 음악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창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뮤지컬 배우 출신 정계은, CCM 1집 앨범 발매

# “이 음반이 영혼을 치유하기를...”

뮤지컬 배우 정계은 씨가 CCM 1집 정규앨범 '疏援(소원):우릴 향한 하나님의 힐링 메시지'를 발매했다.

정계은 씨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성악과 뮤지컬을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07년도에 예수전도단 DTS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부흥한 국과 사랑의교회 험스바찬양단에서 활동했다.

또한 제22회 극동방송 창작경

연대회에서 'Right On(라이트 온)'으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ight On(라이트 온)'은 이번 앨범에도 수록됐다.

정씨는 “세상의 무대를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바닥을 보게 하시며 바닥을 치며 통곡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그때에 다른 길에서 비추어는 빛을 보았다”며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영원 불변한 진리의 빛이신 아

바 아버지였다”고 말했다.

전체 10곡을 담은 정규음반으로 나오게 된 이번 1집 앨범은 기획 단계에서는 3곡의 싱글 음반으로 발매 예정이었다.

그녀는 “처음 싱글 음반 제작을 위해 3개월을 계획했지만 정규음반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며 1년의 시간이 걸린 음반”이라며 “그 상황이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음반에서 풀어낸 음악이 그렇듯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고백이 되었던 시간들”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르에 대한 '소통', 다양

한 연령대와의 '소통'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계은 씨는 “음반 안에 녹아든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은, 정계은이라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나는 '교제'이고 동역자들과의 협력이며 이 음반을 듣는 분들과의 소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이 음반이 영혼을 치유하며 저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학교 소개** 1990년에 박요한(Rev. John Park)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윌리엄케어대학 코리안 Ph.D 과정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케어대학의 박사학위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과정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 특징:**
- 윌리엄케어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 윌리엄케어대학의 도서실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케어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우에, 미주개혁대학의 D.Min, D.Miss, Ph.D in Theology (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미주개혁대학은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is pleased to join The Reformed University in offering collaborative graduate degree programs. We valu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insights and innovations of missiologist Ralph D. Winter with the Korean community"

Dr. Beth Snodderly (윌리엄케어대학교 총장)

##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 Graduate |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 Graduate |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 세부 전공:**
- 신학 Theology
  -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 심리학 Psychology
  - 선교학 Missiology
  -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SEVIS I-20 발행

##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하게 됩니다.
- 1) 일 시 : 2013년 7월22일(월) - 26일(금)
- 2) 장 소 :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 3) 수업시간 : 오전 10시~오후6시
- \*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2013년 여름학기 속성 클래스 일정표

7월22일 (월)	선교학 (10AM-12:30PM, 2PM-6PM)
7월23일 (화)	상담학 (10AM-12:30PM, 2PM-6PM)
7월24일 (수)	선교학 (10AM-12:30PM, 2PM-6PM)
7월25일 (목)	기독교 교육 (10AM-12:30PM, 2PM-6PM)
7월26일 (금)	특강 (10AM-12:30PM, 2PM-6PM)

###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보내는 할아버지의 편지



현순호 목사

나의 손녀 아시와 손자 성진아, 지금쯤 너희는 뭘 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구나. 오늘은 할아버지가 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아빠와 같이 읽고 할아버지에게 답장해 주면 좋겠구나.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위시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행사가 많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에는 뜻있는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것조차 차츰 줄어들어 드는 것 같구나.

노인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국에 와서 더욱 외로워졌다. 찾아갈 곳이 별로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화를 주고 받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어서일까. 나이가 들면서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더 외로워질텐데... 그런 날이 없기를 상상해 본다.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기 그지없고 시간이 그렇게 길 수 없지. 반면에 늘어나는 것이 많다. 병원에 가는 일과 약국에 가는 일, 아침·저녁으로 먹는 약이

늘어나고, 아픈 곳이 많아지며 TV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세상을 떠나가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쓸쓸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마마루 땅에 단비가 내려 목말랐던 꽃과 나무가 생기를 얻어 싱싱하게 자라듯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 여기저기 아프던 것도 별로 못 느끼고 아침이면 오늘은 너희들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재미있게 지낼까 생각하기에 바쁘고 저녁에는 하루의 중요한 사건들을 일일이 일기장에 적어 놓으며 너희들이 자라는 모습을 깨알같이 담아 놓는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의 관심을 유난히 많이 받았지. 너희 엄마가 40세를 바라볼 때였고 더욱이 너희는 쌍둥이이고 또한 약 3주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했단다. 성진은는 몇일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집으로 오게 되니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관심도 정(情)도 많이 들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면에 있어 정상이 되고

특별하고 영리하기까지 하니 감사한 것 밖에 없다. 성진아, 너는 할아버지의 3대 독자가 되는구나. 나에게도 다섯 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으니 모두 일찍 죽고 나만 오래 사는데 너희 아빠도 외아들이라 보니 내가 3대 독자가 되어 할아버지의 성을 이어가는구나. 이래저래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고 자주 볼 수 있으니 사는 보람도 있었다.

너희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구나.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안아 들었을 때 확실히 알게 된단다. 매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할머니는 허리를 다칠까봐 너희를 드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말도 매일 느는구나. 처음에는 단어 하나씩 하다가 어느덧 두세 마디를 연결해서 의사 표시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되었으니 누굴 닮아 말을 그렇게 잘 하니! 어느날 너희가 서로 "여보여보" 하면서 "우리 집에 감시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 앞에서 말조심 해야겠구나 하며 웃었다. 너희들이 '산토끼 토끼야' 노

래를 부를 때 기타를 어깨에 메고 색안경을 끼고 부르면서 강충강충 뿜 때는 자던 소도 웃을 지경이란다.

너희들이 전화로 할머니에게 고구마, 한국밥, 또는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가면서 너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구나. 노인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환영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희뿐이구나. 애들이, 얼마 후에 너희들이 학교에 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생기면 우리와 같이 노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겠지. 그러나 그 때에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지 말아다오! 우린 마치 농부가 봄·여름 내내 땀흘려 곡식을 가꾸며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듯 너희들이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기뻐할 거야.

사랑하는 아시와 성진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두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렴. 찬송가도 자주 부르고, 내 달에는 주기도문 가르쳐줄게! 안녕.

### 누가의 선교 패러다임

한국 선교의 이슈 가운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은 선교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 속에서 데이비드 보쉬는 복음서의 저자 누가의 선교 패러다임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필자의 소견과 더불어 나누는 것임을 밝힌다.

신약의 저자인 누가의 선교 패러다임은 현대 선교가 결코 어떤 조직의 개편이나 전략에 있기보다 좀더 개인의 영적 능력,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실천 능력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성령의 사역 패러다임이다. 선교는 오직 성령께서 사역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전환이 그 요건이다. 우리 주변의 소리, 외적인 요소나 기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이 많아질수록 성령의 의존도는 약해지고, 합리적일수록 성령의 역사성은 줄어들는다. 구체적인 사역과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온전히 성령께 의존하는 기도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선행 작업이다.

특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내용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필자는 깊이 의식한다. 한국교회의 기도 내용,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 교제이기 때문이고,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숙한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누가는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를 상호 연결했다. 결코 분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았으며,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오늘의 선교현장에 매우 유익하다. 나의 선교현장은 대부분 구분된 사역을 생각 없이 진행한다.

국교로 인정받는 종교, 우리가 배척하는 이슬람, 불교 혹은 기타 타종교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무지한 구분을 시도한다. 그리고 배척하는 태도를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다. 지성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레슬리 뉴비긴은 타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선한 일에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며, 그들도 선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보다 더 훨씬 넓어져야 하는 것임을 느끼

게 한다. 나의 소극적이고 편협한 무식함을 깨우치는 것이 곧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된다.

셋째는 정의의 실현이다. 마태는 일반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면, 누가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그의 복음서에서 보게 된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지나친 사회선교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고, 물질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이 이러한 사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보수주의 경건한 신앙을 이야기할 수록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인가를 깨닫게 된다. 경제 정의의 핵심은 나눔인 것을 배우게 된다. 오늘 불합리한 경제정책이나 정부시책에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비난을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경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책무이고 이것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다. 약에 대한 비폭력저항, 증오와 복수의 무의함, 폭력과 테러와 전쟁 빈곤의

현실 속에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기도, 스테판의 죽음 앞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가 존재할 자리가 없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교의 실천적 본질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들은 대부분 동료들간의 관계이다. 극도의 대립으로 인하여 서로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관계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갈등의 구조는 역사 이래 인간의 숙제이다.

상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현대인의 시각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일방적이다. 자기들을 향하여 창과 칼을 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일이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화평을 극치를 이룬다. 화평은 죽음, 즉 개인의 희생과 파괴와 절망과 비난과 무시함을 딛고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게 된다.

다섯째는 대적과 고난의 패러다임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핵심은 대적과 고난이다. 핍박으로 특징되는 것은 바울의 사역

이다. 바울의 사역은 적대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의 선교적인 일생을 마무리한다. 대적과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누가의 주장이다.

오늘날 지역과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대 선교에서 대적과 고난의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대적이 일어나지 않음은 세상과의 타협 때문이고, 고난이 일어나지 않음은 편리주의에 빠진 이유일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고난을 거의 받으려 하지 않는 현대주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장을 누비다 보면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문화적인 충돌과 민족주의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과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없는 답답함이 엄습해 온다. 일종의 고난의 행렬이다.

현장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와서 도우라, 말씀으로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식만 가지고 있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선교의 패러다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과 영성의 깨우침이고 거기에 대한 헌신과 노력인 것을 알게 된다.

모스크바 선교사 세르게이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http://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 하나님이 세상을 보듬는 손길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금번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OC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차세대 리더 장학금 전달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은 때, 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대적이 역사 이래 최대라고 말하는 때, 깨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사실 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나라

대로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기적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거짓과 술수로 왜곡되어진 비난을 이길 수 있는 길,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연합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나눠주시더니, 말씀을 나눠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섬겨주시다가 결국 몸과 피를 전부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가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중할 때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기윤실)에서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8.4%와 19.1%의 낮은 수치에 그쳤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각각 48%, 60%의 응답자가 봉사 및 구제 활동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인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나눔과 섬김의 삶'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가 밝혀낸 가장 효과적인 행복 증진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200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 지출 중 자신을 위한 지출과 타인을 위한 지출 중에서 타인을 위한 지출이 행복과 더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아스피린보다 더 큰 효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로 만 55세 이상의 성인들 중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네 번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강한 효과라고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경험하는 평온하면서도 기분 좋은 상태를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고 하는데,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후에도 이와 유사한 '헬퍼스 하이(Helpler's High)'가 찾아와 만족감과 자신감이 증가하고 더 평온

해지며 우울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행동이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은밀한 구제를 위시해서 많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목요 실버드림대학과 토요 한글학교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샬롬 장애인 재활 센터에 보내기 성금 전달, 금번 한국 선교 대회 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한 끼 식사 섬김,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선교와 아세안 총회 선교사 가족 초청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또 준비하고 있지만,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차세대 리더 장학금 전달 사업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세번째 지팡이



**이 학 진 장로**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한 8단원에서, 세번째 유월절(다섯)과 세번째 초막절 이후(여섯), 그리고 수전절 이후 베레아 사역(일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4:13-21, 눅 9:11-17), 건너편 서쪽 벧새다(막 6:45)를 향해 물 위를 걸고 시고 가버나움(요 6:17)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회당에서 '생명의 삶'을 설명하십니다(6:32-59). 2) 3차 갈릴리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막 6:53-56, 마 14:34-36),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서서(막 7:24, 마 15:21) 수로보니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막 7:25-30, 마 15:22-28) 등의 사역을 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나와 데가볼리(10 개의 도시)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사천명을 막으시는(막 8:1-9, 마 15:32-38) 등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막 7:31-37, 마 7:31-37).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서북안의 마가단지방(달마누다, 혹은 막달라)으로 가셨습니다(막 8:10, 마 15:39).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시고(막 8:11-12, 마 16:1-4) 다시 배를 타고(막 8:13) 갈릴리 동북안의 벧새다로 가서서 맹인을 고치시고(막 8:22-26),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거쳐(막 8:27-39), 그 북쪽의 변

화산(월몬 산으로 추정)으로 행하십니다(막 9:2-23, 눅 9:28-36).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고(막 9:14-29, 마 17:14-21, 눅 9:37-43)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마 17:24). >**여섯, 요 7:10-11:57 세 번째 초막절이후 수전절**< 세 번째 유월절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서는 칠십인 전도단을 돌씩 짚지워 보내시며(눅 10:1-20),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마 19:1-2).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눅 10:25-29)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하여 누가와 마태복음에 있는 13개의 비유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의 본질이 신약적인 확대 해석을 통하여 이해되고 진정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 누가(눅 10:30-16:19)와 마태복음(마 24:45, 13:31, 18:1, 22:1)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한 13개 비유들이 있습니다(참고, 막 4:30, 하

나님 나라를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2) 율법의 본질: 율법의 확대 해석 혹은 율법의 신약적 해석(새 언약, 새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임이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이니라(눅 16:14-18)라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십니다. >**일곱, 요 10:40-42 수전절 이후 베레아 사역(요단동편으로 가심)**< 1)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증: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수전절에 성전에서 양과 목자의 설교를 하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본체 이시며 근원이심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설명하는 것으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거듭난 생명(요 3:3), 생명의 물(4:14),

생명의 떡(6:25), 생명의 빛(9:5), 생명의 근원(11:25)으로 설명합니다. 2)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의 구원을 교훈으로 설명하십니다: 마 19-20장(막 10장, 눅 18장)에 있는 교훈들로,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심으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신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포기함(하나님을 우선함)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실제로 누가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시고, 소경 돌을 고치십니다(막 10:46 바디메오, 눅 18:35). 이어서 삭개오의 회개(눅 19:1-10)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원리를 예를 들어(교훈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요 12:1-8, 마리아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는 마지막 주간으로의 연결고리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제12차 1일 신약통독 180회

이번 메모리얼데이 휴일(5월 27일) 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1. 신약 27권 260장 전 권을 하루에 완독하는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글개역성경)  
 2. 영어권자녀들을 위한 영어통독집회 (4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찬양도 준비하였습니다. (NV 영어성경 사용, 강사: James Lee 전도사)  
 3. 이번 Memorial Day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3년 5월 27일 (월) 오전8시-오후 8시 (시간엄수)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909)983-0994  
**참가비** 30불(성인)/10불(자녀) 두끼 식사 제공  
**강사진** 김동원 목사, 이희철 목사, 한영구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온타리오 공항 근처 (D Street과 Allyn Ave 사거리)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윌연합교회 크리스천헤럴드 (라디오방송 AM1650) 기독일보 미주기독교방송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통일의 복음** | 류호준 교수의 에베소서 메시지  
류호준 | 새물결플러스 | 332쪽

류호준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장의 에베소서 강해집이다. 평촌 무지개교회에서 설교 목사로도 섬기고 있는 그의 책들은 딱딱한 신학적 내용을 에세이처럼 담아내 시원한 감동을 준다. 구심점이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에베소서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여성과 종교개혁**  
키르시 스티에르니 박경수 역 | 대한기독교서회 | 628쪽

남성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종교개혁의 기록에서, 무시되고 망각되어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드러낸다. 책의 주인공들은 16세기 종교개혁 동안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억압에 더하여 성적 억압까지 받으면서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옹호하고 당당하게 개혁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이다. 이들이 어떻게 소명에 따라 살았으며, 시대와 공간 속에서 종교개혁운동에 공헌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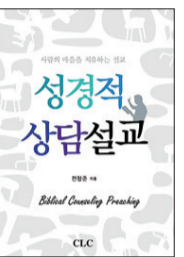
**붓다와 희생양**  
정일권 | SFC | 384쪽

사회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기초로, 불교의 문화적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 해체주의 철학과의 이론 논쟁을 통해 서구화된 불교 이해가 지닌 근원적이고 사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불교 비판이 아니라, 불교의 문화적 기원에 채색된 서구적 이해를 걷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불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할 것이다.



**성경적 상담설교(개정판)**  
전형준 | CLC | 712쪽

상담설교의 새로운 구조 제안과 설교분석을 통해 성경적 상담설교의 이론과 실재를 보여주는 안내서다. 21세기 설교의 대안으로서 성경적 상담설교는 개혁주의 상담설교이며, 구속사적 설교,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상담적 강해설교, 마음의 실전을 강조하는 설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라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본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REVIEW

## 아이는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지 않는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 아이 안전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많은 부모들이 훈련되지 않은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십대 아이의 문제들을 모두 ‘사춘기 증상’으로 여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감기가 낫듯이 사춘기 증상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부모가 고쳐주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모양과 형태를 바꿔가며 아이를 망쳐놓을 뿐이다. 아이에게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이제 다 카웠으니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온전히 집중해서 가르치고, 아이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보내는 사인을 읽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그제야 우리 아이가 괴물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아이는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지 않는다》에서 이 책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십대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온, 《십대들의 쪽지》 발행인 강금주 대표가 쓴 십대 자녀교육서이다. 젊은날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이후에는 청소년 전문 상담자로서 이 땅의 십대와 밀착된 삶을 살아온 저자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이가 사춘기적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하는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알려준다.

저자는 아이의 문제와 사춘기적 증상을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이러한 생활습관과 태도를 훈련시키면 이후 십대 아이와 지내는 게 한결 편해진다고 말한다. 책에는 흔들리는 십대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사춘기가 끝나기 전 내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문제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사춘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내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줄 알기,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것, 남의 아픔에 눈감지 않는 마음(가치관), 부모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법, 자녀도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가족관계), 무엇을 하든 바른 행동과 말투는 기본, 두꺼운 책도 읽을 줄 아는 독서 습관(생활습관), 암기 공부는 실력을 쌓기 위한 첫 단계·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는 법, 자유롭게 말하고 질문하는 습관, 노력하며 공부하는 모습에 대한 자부심(학교생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되기, 이성 교제는 가능한 한 미루는 게 좋다(친구관계)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봉 ■ 1박스(3개월분) 360봉

미국 캐나다 특·검·판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의료정보** **세종 뇌보감 골드** **고려대학교 고려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지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os Angeles, CA 90005(미주복음방송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b>EQUUS SIGNATURE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499 Lease</b> per month plus tax	<b>SONATA GLS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109 Lease</b> per month plus tax	<b>ELANTRA GLS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b>\$99 Lease</b> per month plus tax	<b>ACCENT GLS M/T 2013</b>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89 Lease</b> per month plus tax
--	---	---	--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5월 31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562.900.2399**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저자 인터뷰] 성안교회 담임 장학봉 목사

“ ‘신앙 재기하면 삶 재기하는’ 성경의 법칙 나누고 싶다”



장학봉 목사는 자신의 작품을 ‘올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넘어야 할 산’,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해피바이블’ 등을 통해서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하는 성경의 법칙을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값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시대에 알맞은 성경 해석과 힘 있고 능력 있는 설교로 부흥회와 방송선교사역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학봉 목사의 이메일 서명 문구다. 이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장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책과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값이 나가는’ 귀한 존재임을 일깨우고 있다. 장학봉 목사의 저서들은 하나님의 결작임을 잊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특징이 있다.

장학봉 목사는 “ ‘올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는 패배한 인생의 전반전을 역전의 후반으로 만들기 위한, 하프타임의 작전 내용과 같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첫 저서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보는 모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끔 우리는 벼랑 끝에 서 보아야 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오늘 우리 모습에 새로운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가 바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알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벼랑 끝에

서신 것도 죄인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벼랑 끝에서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장 목사는 힘주어 말했다. 특별히 이 책은 목회자 사모를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읽고 내적으로 치유된 간증을 많이 들려주고 있다고 하니, ‘크리스천의 힐링 북’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인생은 평생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어려운 산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목숨을 걸면서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가를 물으면, ‘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이며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끊임없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 목사의 ‘산’ 이야기는 그의 두번째 저서 ‘넘어야 할 산’에 담겨 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누구나 필히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미움·유혹·핑계·게으름·욕심·불평·염려·화·과거·패배감·자만심 등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장학봉 목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험난한 장애물도 넘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태산 같은 산이라도 쉽게 넘을 수 있지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

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만 합니다”라며, 우리가 문제의 산들을 잘 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

첫째는 이 산을 넘고 나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고 한층 큰 사람으로 서게 되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이 산들을 잘 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하나 신나게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출간된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위기들을 열 가지로 구분하고, 각 주제에 맞는 성경적 해답과 원리를 제시했다.

“우리는 삶 속에서 9회말 2아웃과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곧 패배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겠지요.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패배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승리를 위한 관문이라 믿어야 해요.”

장 목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안고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들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아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전을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여, 그

들이 그 말씀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는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장 목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붙들어야 하며, 그것이 삶의 매 순간에 나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피바이블’은 장학봉 목사의 결작 중에 결작이라는 평가를 듣는데, 2005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CTS기독교TV ‘해피바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요한 방대한 내용이 DVD에 담겨 있다. 한 목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설교해 DVD로 출시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한다. 장 목사는 4년여간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의 오류도 지적받지 않고 난해하게 학술이 대립되는 부분도 깔끔하게 해설해내어, 누구나 성경 전체를 쉽

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외의 수많은 교회와 대학·성지 등 다양한 곳에서 촬영하여, 배경이 다채로울 뿐 아니라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자신의 작품들 ‘올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넘어야 할 산’,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해피바이블’ 등을 통해서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하는’ 성경의 법칙을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문이 닫힐지라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성공 법칙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대로 실제로 상황과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우울증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책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는 사연들을 꾸준히 보내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장 목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 (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mlimretreat.com / www.retreatkamlim.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한초커/카푸치노/플랫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혼인이혼, E2 투자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노인시민아파트 신청대행

213-365-6622 (67+ 사무스베릴라인드와대역역 흰색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완전 인기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온! 자동차 핸들 커버 \$30 강력안 음이온 • 원적외선 방출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차력 관측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tax

로데오 갤럭시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 푸엔테힐스 현대 MEMORIAL DAY SPECIAL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만나세요!

**\$82**

+TAX (STK #398513)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LS

**\$102**

+TAX (STK #701349)

36 Month lease/12k mile/T.D.O 1,999

MSRP \$22,360

PH HYUNDAI D/C \$2,30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369**

+TAX (STK #065945) Demo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10,5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Sales  
스티브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정  
626.513.4981

PH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